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니시고

오랜 세월 사람들은 인생에서 한없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이라 고 말하여왔다.

하지만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위대하고 고귀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혁명가에게 있어서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소중하며 힘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철리를 가슴속 깊이 새겨온 유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담당하시는 원수님의 위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일군들에게 전해지며 사랑과 믿음으로 통제력을 확장시킨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은 우리 인민을 위한 일사부투의 정신으로 전해지며 사랑과 믿음으로 통제력을 확장시킨다.

『일군들은〈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혁신으로 헌신하여라 합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만의 기슴을 통증을 한다.

나는 철저히 평범한 인민대중,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시고 아끼주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 …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간직하신 인민에 대한 믿음이고 확고한 신조이다.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통제급!

이 부름속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키워주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들의 도모으로 정체 세세암울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뜨겁게 달려져 있는 것인가.

2년 전 7월의 그날을 잊을 수 없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압소를 들어보시

며 우리는 인민들을 잘살게 하고 인민들이 불편없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못다 바친 충정을 우리 인민들을 위해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로동계급을 밀고 철도현대화를 실현하길 원대한 구상을 절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로동계급을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으로 통제급이라고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철도부문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온 나라 로동계급이 원수님과 함께 회개 위한 미친 후생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 기상을 다시 한번 펼쳐 나가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힘껏 강조하시였다.

현대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수령의 존합으로 불리운 로동계급은 없었다.

이것은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모신 우리 로동계급만이 받아안을 수 있는 영광이고 훅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철도부문의 철도를 미친 온 나라 로동계급이 원수님과 함께 회개 위한 미친 후생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 기상을 다시 한번 펼쳐 나가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힘껏 강조하시였다.

『일군들은〈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혁신으로 헌신하여라 합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만의 기슴을 통증을 한다.

나는 철저히 평범한 인민대중,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키워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대로 맡은 청년창장을 키우시여 시대와 인민앞에 내세워주고 계신다.

어느 날 철도를 경축하는 행

사장에 나오시여 열풍의 환호를 울리고 또 울리는 미더운 대포들을 힘들에 안아 기념촬영을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이 우연히 암

거온다.

사실 그때 행사에 참가한 청년대표들은 멀리 전선에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마음속으로 안아 보았을 뿐 그이를 보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런데 전날까지도 전선길에 계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쌍인 피로도 푸실헤없이 청년철강축행사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시기 위해 나오신 것이다.

그날 기념촬영을 마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청년들은 정말 훌륭한 청년들이라고, 우리 청년들은 그 어떤 청사성상에도 물질 않고 오직 당단을 굳게 떨고 따르고 있다고, 우리 청년들은 정치사상 적폐모자 대단히 종종뿐 아니라 조직적 전투력, 단결력이 있다고 하시였다.

어머니께나 우리 청년들이라고 정

수령님의 믿음은 우리 인민은 역사

의 흥망 속에서도 오직 당단을 굳게 떨고 따르는 위대한 인민이며 이민과 함께 함께라면 그 어떤 역경도 맞

아이를 향하고 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고 이지이다.

위대한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은 우리 인민은 역사

의 흥망 속에서도 오직 당단을 굳게 떨고 따르는 위대한 인민이며 이민과 함께

이민과 함께라면 그 어떤 역경도 맞

아이를 향하고 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고 이지이다.

위대한 인민!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은 우리 인민은 역사

의 흥망 속에서도 오직 당단을 굳게 떨고 따르는 위대한 인민이며 이민과 함께

이민과 함께라면 그 어떤 역경도 맞

아이를 향하고 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고 이지이다.

위대한 인민!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은 우리 인민은 역사

의 흥망 속에서도 오직 당단을 굳게 떨고 따르는 위대한 인민이며 이민과 함께

이민과 함께라면 그 어떤 역경도 맞

아이를 향하고 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고 이지이다.

위대한 인민!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은 우리 인민은 역사

의 흥망 속에서도 오직 당단을 굳게 떨고 따르는 위대한 인민이며 이민과 함께

이민과 함께라면 그 어떤 역경도 맞

아이를 향하고 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고 이지이다.

위대한 인민!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은 우리 인민은 역사

의 흥망 속에서도 오직 당단을 굳게 떨고 따르는 위대한 인민이며 이민과 함께

이민과 함께라면 그 어떤 역경도 맞

아이를 향하고 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고 이지이다.

위대한 인민!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은 우리 인민은 역사

의 흥망 속에서도 오직 당단을 굳게 떨고 따르는 위대한 인민이며 이민과 함께

이민과 함께라면 그 어떤 역경도 맞

아이를 향하고 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고 이지이다.

위대한 인민!

위대한 인민!</

전국의 의료봉사거점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나가자

당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꽂피워간다

보건성 일군들과 눈이 야기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깊이 고지하시었다.

『보건부문에서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 잘 보호하고 전시kip에 대한 당의 정책적 요구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무병장수하여 끊없는 행복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에 맞게 의료봉사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보건부문에서 당시 제7차 대회에서 제시된 사업을 높이 받들고, 군인민병원들을 해당 지역의 의료봉사거점으로 꾸려가기 위한 보건부원장을 세워서 일으키고 있다.

얼마전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보건성의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들을 지역의 의료봉사거점으로 꾸리는 것은 당시의 중요한 보건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국장 김경철: 그렇다. 시, 군인민병원들은 대한 꾸려기 사업은 당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민

만경대 구역 인민병원이 시, 군인민병원들을 해당 지역의 의료봉사거점으로 꾸려기 위한 사업에서 앞장서나가고 있다.

수만명이 되는 내외부부재가 일상되고 의사선, 입원실, 식당과 취사장, 제약실 등을 보건위생학 체육과 현대적 미관에 맞게 꾸려기 위한 사업들이 전부 걸쳐되어 병원의 면모가 불과하게 달라졌다.

이 날 병원으로 여러 명의

주인 따운 일본새가 낳은 새 모습

만경대 구역 일군들의 사업에서

구역인 일군들이 찾아왔다.

그들 속에 구역당책임일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원장은 차운기 긴장해졌다.

자체의 힘으로 새 세계의 요구에 맞게 병원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당시에서 바라는 놀이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것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일군들은 사소한 것이라도 늘어놓고 저녁늦게 병원에 도착한 구역당책임일군은 어느 때처럼 작업현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현장에 돌아보고 난 그의 얼굴에는 흥미로운 표정이었다.

구역인의 어머니 대상건설장을 돌아보고 저녁늦게 병원에 도착한 구역당책임일군은 어느 때처럼 작업현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당에서는 보건사업을 모인 일군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될 협의회에 참가하여서야 원장은 비로소 구역당책임일군이 자기 사업의 첫 공정으로 병원을 돌아본 사업을 알게 되었다.

구역당책임일군은 이렇게 실질적인 사업으로 대처해온 일군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될 협의회에 참가하여서야 원장은 비로소 구역당책임일군이 자기 사업의 첫 공정으로 병원을 돌아본 사업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늦게 병원에 돌아온 일군들은 보건사업을 어떤 관점과 맵장을 통해 보고 대화를 했는가. 보건사업을 본

보기로 하여 시, 군인민병원을 꾸려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다.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하여 당시 은정속에 일어선 병원들을 소개하는 대미체험관을 각 도민위원회에 화상전송계기를 통하여 면밀히 대화한 당시의 숭고한 뜻을 더욱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보건성에서는 모든 시, 군인민병원들이 보건의 학적 요구에 맞게 보다 현대적으로 일신시킬 높은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하였다.

기자: 시, 군인민병원꾸리기와 관련하여 성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는가?

부국장 최경철: 성일군들로 상무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8월부터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이 보건사업을 험하고 숨겨지지도

침략과 전쟁의 화근을 들어내야 한다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면서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걸은 구름을 짙게 풀어오는 민족의 제양거리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가 조작된 때로부터 39년의 세월이 흘렀다.

1970년대 말 세계 도처에서는 남조선에 존재하는 불법적인 『유엔군사령부』를 시금치 해제하고 미세침략군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정의의 목소리가 세차례 울려나왔다. 이에 바빠맞은 미국은 내외여론을 기만하고 어떻게 하나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 강압을 험담하며 대조선침략악당을 실현하기 위해 1978년 11월 7일 피씨들과 『현 합군사령부』라는 것을 조작해냈다.

당시 피씨통치배들이 미국과의 『현 합군사령부』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은 남조선을 미국의 군사기지로 제작 내각기고 상장의 철권정권에 적극 우종화 대가로 퀄팅력을 유지하며 동족을 무역으로 암살해보려는 불순한 기도가 팔려있었다.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는 이렇듯 남조선에 대한 영구강압과 북침악당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홍시와 상장을 등에 업고 강명을 부지하며 통족을 해치려는 피씨통치배들의 미국제국제적인 행위의 산물이다.

악명 높은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의 조작으로 미세침략군무리를 제작 주인행사를 하면서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미쳐남겼고 인민들은 존엄과 자주권을 무함하는 것처럼 창피한 고통을 감당해야만 되었는데 남조선에서 남조선에서 남조선에 대한 영구강압과 북침악당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홍시와 상장을 등에 업고 강명을 부지하며 통족을 해치려는 피씨통치배들의 미국제국제적인 행위의 산물이다.

남조선에서 모든 실권을 끌어들여고 있는 배경에는 미국이며 이자들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도 미국이며 이자들의 명령을 끌어들여고 자신의 의사와 강제로 내리먹이는 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의 지지와 후원이 없는 남조선통치 배들의 운명이란 사실 끈연어진 것인식이나 더불어 있다.

남조선의 이런 끔찍한 사태들은 북침전쟁사관으로 벌어고 있는 현지의 조종기구가 바로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이다.

미국은 『현 합군사령부』를 통해 피씨들을 군사적 종속체제에 더욱 절실히 미끄러고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암昧하게 강행하여 왔다.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가 존재하여 지난 수십년간 미세침략군무리를 놓은 것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층이 시용을 비롯한 어여 지역에서 비상황의 행동에 틀입하였다.

220여개의 정당, 단체들로 결성된 트럼프반대 공동행동네트워크는 미세침략군무리를 제작 주인행사를 하면서 미세침략의 행동에 나선 각계층 군중은 『트럼프가 한순간도 못 자게 하파!』, 『트럼프는 이 땅을 떠나라!』, 『전쟁미치왕이 와전과 파괴하라!』고 채워면서 트럼프의 행각으로 정부를 따라가고 있다.

반트럼프, 반미투쟁본부와 경기반트럼프, 반미투쟁본부 준비위원회는 트럼프가 도착하기 될 오산미공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단체들은 트럼프의 이번 행각을 전쟁방지법으로 막아하였다.

트럼프가 제동의 행각을 위해 해방공모화국민단을 푸려 3개

울지 않는 날은 있어도 미군법과가 없는 날은 없다.』라는 말까지 나를았겠는가.

타민족에 대한 극도의 멸시와 인간중요사상, 번데와 재통폐적으로 길들여진 미세침략군무리들의 악수적만행은 미군법적이며 예속적인 『동맹』의 간판밑에 서길려진 국가무도한 반인권적죄행위였다. 하기야 남조선인 민들은 온갖 범죄와 민족적수치의 온상인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를 지체없이 해제하고 미세침략군을 당장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는 『북의 도발』과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범죄적인 침략전쟁기구로서 남조선인민들뿐아니라 전체 조선민족의 머리우에 창혹한 전쟁의 재난을 물아오는 화근이다.

남조선에서 모든 실권을 끌어들여고 있는 배경에는 미국이며 이자들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도 미국이며 이자들의 명령을 끌어들여고 자신의 의사와 강제로 내리먹이는 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의 지지와 후원이 없는 남조선통치 배들의 운명이란 사실 끈연어진 것인식이나 더불어 있다.

남조선의 이런 끔찍한 사태들은 북침전쟁사관으로 벌어고 있는 현지의 조종기구가 바로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이다.

미국은 『현 합군사령부』를 통해 피씨들을 군사적 종속체제에 더욱 절실히 미끄러고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암昧하게 강행하여 왔다.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가 존재하여 지난 수십년간 미세침략군무리를 놓은 것은 그대로 남조선에서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를 찾았다는 광장까지는 미국과의 『동맹』을 끊줄처럼 어기는 피씨통치배들의 제길적인 악습은 이제나 오늘이나 번창이 없다.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피씨들을 북침전쟁사관으로 대비하고 있는 현지의 조종기구가 바로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이다.

미국은 『현 합군사령부』를 통해 피씨들을 군사적 종속체제에 더욱 절실히 미끄러고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암昧하게 강행하여 왔다.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가 존재하여 지난 수십년간 미세침략군무리를 놓은 것은 그대로 남조선에서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를 찾았다는 광장까지는 미국과의 『동맹』을 끊줄처럼 어기는 피씨통치배들의 제길적인 악습은 이제나 오늘이나 번창이 없다.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피씨들을 북침전쟁사관으로 대비하고 있는 현지의 조종기구가 바로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이다.

미국은 『현 합군사령부』를 통해 피씨들을 군사적 종속체제에 더욱 절실히 미끄러고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암昧하게 강행하여 왔다.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가 존재하여 지난 수십년간 미세침략군무리를 놓은 것은 그대로 남조선에서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를 찾았다는 광장까지는 미국과의 『동맹』을 끊줄처럼 어기는 피씨통치배들의 제길적인 악습은 이제나 오늘이나 번창이 없다.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피씨들을 북침전쟁사관으로 대비하고 있는 현지의 조종기구가 바로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이다.

미국은 『현 합군사령부』를 통해 피씨들을 군사적 종속체제에 더욱 절실히 미끄러고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암昧하게 강행하여 왔다.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가 존재하여 지난 수십년간 미세침략군무리를 놓은 것은 그대로 남조선에서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를 찾았다는 광장까지는 미국과의 『동맹』을 끊줄처럼 어기는 피씨통치배들의 제길적인 악습은 이제나 오늘이나 번창이 없다.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피씨들을 북침전쟁사관으로 대비하고 있는 현지의 조종기구가 바로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이다.

미국은 『현 합군사령부』를 통해 피씨들을 군사적 종속체제에 더욱 절실히 미끄러고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암昧하게 강행하여 왔다.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가 존재하여 지난 수십년간 미세침략군무리를 놓은 것은 그대로 남조선에서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를 찾았다는 광장까지는 미국과의 『동맹』을 끊줄처럼 어기는 피씨통치배들의 제길적인 악습은 이제나 오늘이나 번창이 없다.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피씨들을 북침전쟁사관으로 대비하고 있는 현지의 조종기구가 바로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이다.

미국은 『현 합군사령부』를 통해 피씨들을 군사적 종속체제에 더욱 절실히 미끄러고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암昧하게 강행하여 왔다.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가 존재하여 지난 수십년간 미세침략군무리를 놓은 것은 그대로 남조선에서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를 찾았다는 광장까지는 미국과의 『동맹』을 끊줄처럼 어기는 피씨통치배들의 제길적인 악습은 이제나 오늘이나 번창이 없다.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피씨들을 북침전쟁사관으로 대비하고 있는 현지의 조종기구가 바로 남조선미국『현 합군사령부』이다.

미국은 『현 합군사령부』를 통해 피씨들을 군사적 종속체제에 더욱 절실히 미끄러고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암昧하게 강행하여 왔다.

들고 이곳에서 우리를 겨냥한 불장난소 풍들이 매일과 같이 강행되었다. 하여 조선반도에는 활시적인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핵전쟁발발의 위험은 날로 고조되어 왔다.

오늘날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은 전제 없이 침포해지고 그에 전승한 남조선당국의 종족대결망동도 보다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전쟁미치왕이 트럼프는 우리를 겨냥한 전쟁폭언들을 끊임없이 내뱉으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이번 속에 핵항공포함을 비롯한 미군법자산들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 수역에 대대적으로 걸림되면서 그야말로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축족발의 초기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다. 이번에 트럼프가 남조선에 날아든 것도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면서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탈기 위한 의도적인 핵폭의 말로이다.

문제는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명목적인 추종이다.

남조선에서 새 정치, 새 생활을 지향하는 평범한 국민들 중에는 북침전쟁으로 동족대결에 따른 충돌과 함께 피부보수정을 끌어낸 남아들이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끊줄처럼 어기는 피씨통치배들의 제길적인 악습은 이제나 오늘이나 번창이 없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하수인 노릇을 자청하며 전쟁 폭언과 함께 동족대결 막강한 힘을 풀어내기 위해 남아들이 당황한 듯이 되어 날뛰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끊줄처럼 어기는 피씨통치배들의 제길적인 악습은 이제나 오늘이나 번창이 없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하수인 노릇을 자청하며 전쟁 폭언과 함께 동족대결 막강한 힘을 풀어내기 위해 남아들이 당황한 듯이 되어 날뛰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끊줄처럼 어기는 피씨통치배들의 제길적인 악습은 이제나 오늘이나 번창이 없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하수인 노릇을 자청하며 전쟁 폭언과 함께 동족대결 막강한 힘을 풀어내기 위해 남아들이 당황한 들판처럼 풀어놓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끊줄처럼 어기는 피씨통치배들의 제길적인 악습은 이제나 오늘이나 번창이 없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하수인 노릇을 자청하며 전쟁 폭언과 함께 동족대결 막강한 힘을 풀어내기 위해 남아들이 당황한 들판처럼 풀어놓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끊줄처럼 어기는 피씨통치배들의 제길적인 악습은 이제나 오늘이나 번창이 없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하수인 노릇을 자청하며 전쟁 폭언과 함께 동족대결 막강한 힘을 풀어놓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끊줄처럼 어기는 피씨통치배들의 제길적인 악습은 이제나 오늘이나 번창이 없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하수인 노릇을 자청하며 전쟁 폭언과 함께 동족대결 막강한 힘을 풀어놓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끊줄처럼 어기는 피씨통치배들의 제길적인 악습은 이제나 오늘이나 번창이 없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하수인 노릇을 자청하며 전쟁 폭언과 함께 동족대결 막강한 힘을 풀어놓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끊줄처럼 어기는 피씨통치배들의 제길적인 악습은 이제나 오늘이나 번창이 없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하수인 노릇을 자청하며 전쟁 폭언과 함께 동족대결 막강한 힘을 풀어놓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끊줄처럼 어기는 피씨통치배들의 제길적인 악습은 이제나 오늘이나 번창이 없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하수인 노릇을 자청하며 전쟁 폭언과 함께 동족대결 막강한 힘을 풀어놓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끊줄처럼 어기는 피씨통치배들의 제길적인 악습은 이제나 오늘이나 번창이 없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하수인 노릇을 자청하며 전쟁 폭언과 함께 동족대결 막강한 힘을 풀어놓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끊줄처럼 어기는 피씨통치배들의 제길적인 악습은 이제나 오늘이나 번창이 없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하수인 노릇을 자청하며 전쟁 폭언과 함께 동족대결 막강한 힘을 풀어놓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끊줄처럼 어기는 피씨통치배들의 제길적인 악습은 이제나 오늘이나 번창이 없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하수인 노릇을 자청하며 전쟁 폭언과 함께 동족대결 막강한 힘을 풀어놓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끊줄처럼 어기는 피씨통치배들의 제길적인 악습은 이제나 오늘이나 번창이 없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하수인 노릇을 자청하며 전쟁 폭언과 함께 동족대결 막강한 힘을 풀어놓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끊줄처럼 어기는 피씨통치배들의 제길적인 악습은 이제나 오늘이나 번창이 없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하수인 노릇을 자청하며 전쟁 폭언과 함께 동족대결 막강한 힘을 풀어놓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끊줄처럼 어기는 피씨통치배들의 제길적인 악습은 이제나 오늘이나 번창이 없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하수인 노릇을 자청하며 전쟁 폭언과 함께 동족대결 막강한 힘을 풀어놓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끊줄처럼 어기는 피씨통치배들의 제길적인 악습은 이제나 오늘이나 번창이 없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하수인 노릇을 자청하며 전쟁 폭언과 함께 동족대결 막강한 힘을 풀어놓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끊줄처럼 어기는 피씨통치배들의 제길적인 악습은 이제나 오늘이나 번창이 없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하수인 노릇을 자청하며 전쟁 폭언과 함께 동족대결 막강한 힘을 풀어놓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끊줄처럼 어기는 피씨통치배들의 제길적인 악습은 이제나 오늘이나 번창이 없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하수인 노릇을 자청하며 전쟁 폭언과 함께 동족대결 막강한 힘을 풀어놓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끊줄처럼 어기는 피씨통치배들의 제길적인 악습은 이제나 오늘이나 번창이 없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하수인 노릇을 자청하며 전쟁 폭언과 함께 동족대결 막강한 힘을 풀어놓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끊줄처럼 어기는 피씨통치배들의 제길적인 악습은 이제나 오늘이나 번창이 없다.

짐원세력이다. 한때 미국에 대해 『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흰복을 끊던 남조선당권자가 『전쟁이 나도 저기서 죽는다』는 말을 나온다. 그것이 『죽어라』는 말을 거리낌없이 내뱉은 트럼프에 대해 항변한 한마디 못하고 도리어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을 운운하여 미국과의 북침전쟁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용납 못할 때 국제적 위협이다.

최근에도 남조선당국은 미군법자산들의 조선반도전개를 미루는 미국의 『대북압박조치들에 동의』의 『동맹』을 『인권침해에 관여한 혐의』로 특별재판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조아들은 3차 『북인권제조치』라는 것을 밟고 있다.

최근에도 남조선당국은 미군법자산들의 조선반도전개를 미루는 미국의 『대북압박조치들에 동의』의 『동맹』을 『인권침해에 관여한 혐의』로 특별재판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조아들은 3차 『북인권제조치』라는 것을

